

'나'도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 이야...

나[我]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非我]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을 모두다 얻을 수 없다."

위의 말은 《유마경》의 《인불이법문품》에서 인용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이무소득'고 하듯이, 성품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필경 '무소득'이다. 그것은 모습이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불조께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무 것도 모르고 무명 속에서 허망한 모습을 덮어쓰고 살던 중생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비춰서 그로 인해 중생 안에 있는 광명의 불씨가 싹트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부처님은 삼십이 상(相)을 지니셨고 또 분명히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눈높이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정도의 수단을 베풀어서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한테는 32상과 중생제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렇지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최고의 수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영원히 멀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온갖 설법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노파심에서 나온 방편이다. 배후는 그런 교학을 배워서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추었으니, 중생도 모두 갖추어야지 부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스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죄다 허망한 것이라고 딱 씌어서, 그토록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벽스님 말씀이,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고 하셨다.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계로, 원문은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다. 사실 조사선의 입장에서 배후의 계속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그냥 씌 잡아 무뎠려버려야 하는데, 활벽스님은 자상하게도 경전에 집착하는 배후를 위하여 금강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일러주고 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네가 망령되어 지어낸 견해다. 본심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심을 언어문자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처음부터

수불 스님의 안릉록 선행 (5)



범이사 주지

모든 것이 필경 '무소득'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방편

"32상 80종호 갖춰야 중생도 부처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허망합니까"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교학에서 '無學'은 더이상 수행할 것 없고 선에서는 '본래무학' 있음 자각하면 그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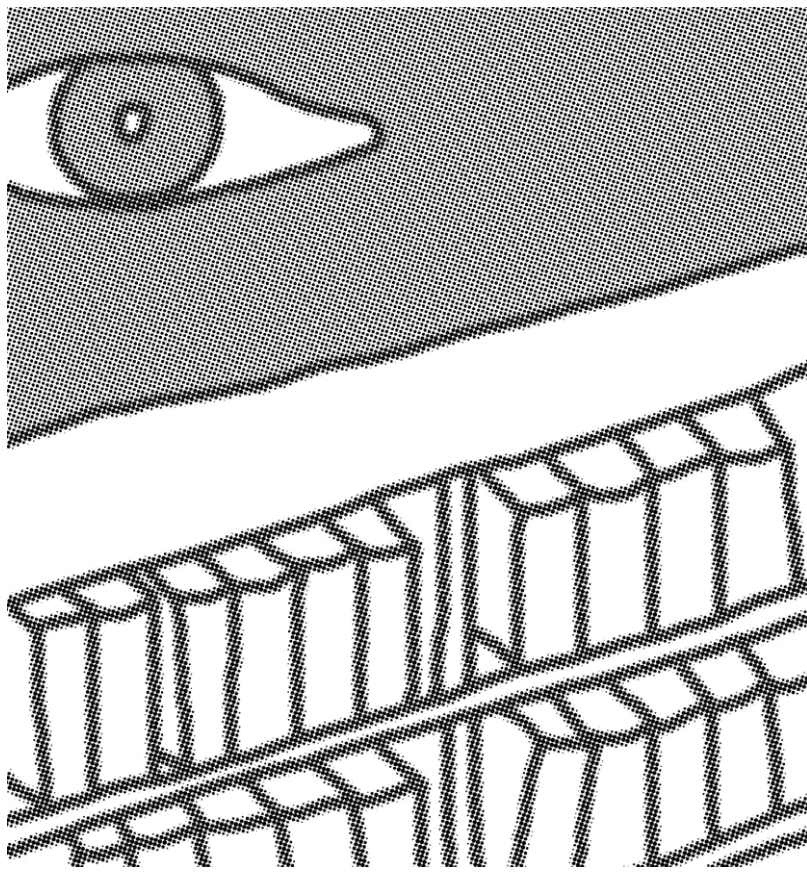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없었다. 그런 것을 지적 이해로 파악하려고 애쓰다보니,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는 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품을 보면 자연히 모든 까닭을 알게 되어 그저 말없이 체험할 것인데, 알음알이에 집착하는 학인은 스스로 속아서 자꾸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장애에 끄달리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이라는 장애에 끄달린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버거나,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등의 견해를 낸다면 모조리 그와 같은 장애를 만들고 만다.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부처와 멀어진다. 알고 멀어지는 것과 모르고 멀어지는 것은 차이가 크다. 스스로 자각 하고 모든 인연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 머무르면서 자꾸 허망한 소리 하면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넘어간 짓을 하게 되어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저런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어쨌든 자기 눈높이만큼 소화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두루 통할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그것들이 너의 마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결국 공 윤회하게 된다.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입장이 또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전환되기 때문에, 생사가 이어진다. 그것이 윤회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집었다 뱉다 하는 것과 같아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중생이 자꾸 망상을 일으키는 모습은 원숭이가 물건을 집었다 놓았다 하는 것과 같아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러니 고행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무학(無學)이어야 한다.

교학에서 '무학'이란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더 이상 배우거나 수행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선(禪)에서는 뭘 배우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본래 무학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뿐이다.

범부나 성인도 없고 깨끗함이나 더러움도 없으며, 크거나 작음도 없고 번뇌도 번뇌를 없애려는 작위도 없다.

일체 중생의 성품이 이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없다 하니가 이 말을 배워가지고, 모든 것을 없앤 뒤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본래 그렇다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투철해야 하는데, 자기의 업을 들여다보면서 "이 업을 녹이고 없애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망상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 자꾸 업을 녹이고 없애려고 별짓 다 하게 된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유위법의 수행은 외도로서, 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㉑



모든 중생은 여래를 그 내부에 잉태하고 있다.

(여래장경)

아홉가지 비유

"시(詩)를 배우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어느 스님이 남긴 명언이다. 그렇다면, 시란 무엇일까? 비유 아니겠는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에둘러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시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승경전에는 수많은 시가 등장한다. 수많은 비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비유를 활용하여 시적으로 말씀한 것은, 좀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일 터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런 특성은 인도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에서부터 유래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인도사람들은 반드시 실례(喻)를 들어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저 산에 불이 났다." 이런 주장이 진리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산에 연기가 있잖아"라는 이유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뒤이어 "연기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와 같이"라고 말해야 한다. "마치 아궁이와 같이"라는 것이 비유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읽는 <여래장경>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은 겉으로 보면 중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 그 속에는 여래(부처)를 깊숙이 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중생은 여래장(來藏)의 존재이다. 이러한 선언을 좀더 실감나게 전하기 위하여, 아홉가지 비유를 드는 것이 <여래장경>의 흐름이다.

연꽃 위에 앉으신 부처님, 별뜰에 둘러싸여 있는 꿀, 껌질로 덮여 있는 곡식, 더러운 곳에 떨어진 금, 가난한 사람의 집 지하에 묻혀있는 보배, 과일, 씨앗, 길가에 버려진 불상, 가난한 여인이 수태한 전륜성왕(轉輪聖王), 거푸집 속의 상(像). 이러한 아홉가지 비유는 모두 그 구조가 동일하다. 'A 속의 B' 라는 형식이다. B가 내부에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A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A에 의해서 은폐된 것이 B이다.

A는 중생, 아니 구체적으로는 중생을 중생이게 만드는 번뇌들이다. 그럼 B는 무엇? 그렇다, 바로 부처이다. 그 부처를 중생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상태의 중생을 '여래장'이라 한다.

악인은 없다!

모든 중생은 다 점차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속에 잉태하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입장은 불

교의 인간관이고, 불교의 중생관이다. 말하자면, 성선설(性善說)에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다.

물론, 여래장의 인간관은 번뇌 속의 인간이라는 점 역시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여래장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사실은 여래를 잉태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격려한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현실 속에는 흉악하게 사람을 해친 살인범도 없지 않다. 특히 어린 생명을 해친 악인을 보면, 악인은 애당초부터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지옥에나 가라, 고 그 응보(應報)를 주문하곤 싶기도 들 때가 많다.



그림 · 박구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닌가? 그 사람들 어디에 선한 불성(佛性)이 존재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밑에서는 그들의 악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래서 사형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죽음과 스스로 마주하게 될 때는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을 때만 한줄기 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악인도 선인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 즉 불성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임은 틀림없다. 불교에서는 "악인은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다만 그 마음이 번뇌와 업으로 인해, 사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켜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뒤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